# $7 \%$ 초고금리 시대 $\cdot$ 곳곳서 ‘제2 금융위기’ 경고음 

4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年 $4.970 \sim 7.499 \%$ 수준

11월 빅스텝 단행시 年 $8 \%$ 환율 $20 \%$ 个코스피 $33 \% \downarrow$ 2008년 금융위기때와 유사

시중은행 주요 대출 금리 상 단이모두 $7 \%$ 를넘어서면서＇초 고금리시대가개막했다．금융－ 부동산－주식시장 등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때와 상항이 유 사하다는 분석이나오면서 불안 감이커지고있다．
31일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 보•전세•신용대출 등 시중은행 주요 대출 금리상단이모두 $7 \%$ 를 넘어서면서 13년 만에 금리 $7 \%$ 시대인 상항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970 ～7．499\％수준이고 주담대 혼 합형（고정형）금리는 $5.360 \sim 7$ ． $431 \%$ 로집계댔다．
신용대출금리（1등급•년）역 시 $5.953 \sim 7.350 \%$ ，전세자금대 출（2년 만기）최고 금리도 7. $248 \%$ 까지 오르면서 $7 \%$ 중반대 로치솟고있다．시중은행 $7 \%$ 대 금리는 2009년 이후 약 13년 만 이다．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 경색이 심화댔던 2008년 말 $8 \%$ 대까지 치솟ㅇㅆㅆㄷㅏ 가 이후 금리가 하릭해 2009년 $7 \%$ 대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8\％금리가 코앞으로다 가욨다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윈회 10 월에 기준금리를 연 $2.5 \%$ 에서 $3.0 \%$ 로 $0.5 \%$ 포인트（p）인상했 다．올 4월， 5 월，7월， 8 월에 이어 10월까지사상처음다섯치례연 속금리인상이다．
11월예정된금통위에서도빅 스텝（기준금리 $0.5 \% \mathrm{p}$ 인상）가 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미국 중 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 준）와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다．
연준은 올해 기준금리 $0 \%$ 수 준에서 $3 \sim 3.25 \%$ 까지올린상태 로 한국은행과 다르게회의가 2 번남아있어 연 $4 \%$ 를넘어설것 이란 분석이나오고 있다．
한은 금통위가 금리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빅스텝 을 단행 할 경우 2008년 금융위 기당시 연 $8 \%$ 시대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현재우리나라상 황이 금융위기당시와유사하다 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08년당시연준은2년1개월 간 기준금리를 $4.25 \% \mathrm{p}$ 올리면 서연 $5.25 \%$ 를 기록해금융시장 에신용경색현상이 초래돘다．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는 우리 니라까지피해를 주면서직격한 을 맞았다．당시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50 원까지 상승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가격은 $40 \%$ 이상 폭락했다．
현재는 원달러 환율 1430 원 으로 1년 새 $20 \%$ 상승했고，코 스피지수는 작년 최고가 대비 $33 \%$ 나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값은최근 주간기준 $0.28 \%$ 하락

하면서 10 년 4 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또한 10 년 만 기 국고채 금리는 연 $4.632 \%$ 로 2011년 3월 8일（연 4．68\％）이후 최고치（채권값최저）를 기록 중 이다．

〈6면에 계속〉
／01｜승용 기자 sy2665＠metroseoul．co．kr


이태원 참사 현장 합동감식 진행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할청 수사본부와 국립과 학수사연구원들이 31 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기 위 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태원은 행정참사＂．．지자체•경찰 대처에 구멍

‘주최측 없는 행사’ 이유로 대응 매뉴얼 없이 사태 악화

지난 29 일 벌어진 ‘이태원 압 사 참사＇의 수습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지방자치단 체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좁은 지역에 과도 한 인파가 몰릴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유관 기 관들이 유기적협조없이 대응책 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전형적 ‘행정참 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

르면 경찰은 이번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이 주최측이 없는 비 정형 행사임을 이유로 별도 대 응 매뉴얼도 없이 상황을 관리 하다가 사태를 악화시킨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 대응과 관련＂주최측이 분명한 행사의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 와 경찰，소방，의료등 유관기관 들이사전에 역할을나눠 대응해 왔는데 이번처럼 주최측이 없는 경우 경찰의 관련 메뉴얼은 없 다＂면서＂이번 사고는（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사고가 발생한 29 일 당 일에 불법 단속 및 범죄 예방과 교통 소통관리를 위해 경력 137 명이 현장에 배치됐다고 설명했 다．2017～2019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때는 평균 30～90명 정도를 배치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이 투입했다는 것이지만 야외 마스크해제직후 열리는 행사에 인파가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용산구는 지난 27일 오후 2 시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대책회의 를 갖고 특별 방역，안전사고 예

방，거리 청결 확보 등을 1 시간 가량 논의했다．회의에는 용산 경찰서장，용산소방서장，이태 원관광특구연합회부회장 등 20 여명이 머리를 맞댄 지난해와 달리 구청내 민원대응반，방역 추진반 등 관련 11 개 부서장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측은＂27일부터 29 일까 지 28 개조，직원 150 여명을 동원 해 비상근무에 나섰다＂고 밝혔 지만，경찰 등과의 유기적 현장 관리 시도는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ik1＠


메트로미디어＇2022 반도체 포럼＇ 초격차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

국내 반도체산업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미국뿐 아니라 중국，일본 업체들까지 추격을 본격화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잃 을 수있다는 우려도나옵니다．비메모리반도체육성 전략도 좀 처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도체 산업 기반을 이루 는 소재와 부품，장비 육성 정책도 미국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그는 중심 산업입니다． 4 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분야로，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전폭 적인 투자와 노력끝에 전세계 최고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 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전세계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본격화하고 추 격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원 뜻을 내비치기는 했지만，정작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현실적인 움직임조차 제 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반도체 포럼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 부 지원과 과제를 제시합니다．
－주 제 ：글로벌 혁신의 주역 K －반도체 －초격차를 넘어상생의 생태계로
－일 시 ：2022년 11월9일（수）14：00～17：00
－장 소 ：서울 여의도 KRX 거래소 컨퍼런스홀
■ 축 사：양향자 국회의원，홍순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강 연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학교융
합전자공학부 교수），왕성호 네메시스 대표이사（한국팹리스산업협 회 대외협력위원장），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 최：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후 원 ：한국거래소（KRX），한국팹리스산업협회
－사전등록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참가비 무료，현장등록 5 만원）
－문 의 ：메트로신문 반도체포럼 사무국
02）721－9826，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metrie

## 생산•소비•투자 또 ‘트리플 감소’

불확실성 커져 경제둔화 조짐
지난 달 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하락하며 7월 이후 두 달만 에다시 ‘트리플감소’를 기록했 다．최근 고물가에 금리도 잇달 아 오르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 지고 있는데다대내외 불확실성 마저 커져 경제 둔화 조짐이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31일 발표한＇9월산 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6 \%$ 감소했 다． 7 월 $(-0.2 \%), 8$ 월 $(-0.1 \%)$ 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 졌다．

〈2면에 계속〉
세젱＝원승일 기자 won＠ 버스티비 191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A 尹지지율， $35.7 \% 16$ 주만 $30 \%$ 대 중반 부정 평가 $61.7 \%$

사신 늇스
－외교•국방장관＂日관함식 참가，안보• 국제관례 고려해 판단＂
－대통령실 대상 국감，국가애도기간 이 후로 미뤄질 듯
－감사원＂서해 공무원＂사건 관련 국정 원 감사 착오 없다＂

－서영석 의원，당원들과 술자리 후폭풍
확산．．．＂단톡방서 우려 목소리＂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